

“복지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강진군 시각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지부 장애인과 함께 부산 여행

30여명 다채로운 체험 통해 사회·문화적 소외감 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 지부(지부장 윤재항)가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간 부산시 일원에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30명이 참석하여 부산 태종대 및 아쿠아리움 등을 관람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탐방에 참석한 이차량 어르신은

“1박 2일간 많은 곳을 견학해서 관광다운 여행을 했다”며, “앞으로도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똑같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윤재항 지부장도 “이번 공감과 치유 탐방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강진군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3년째 추진해오고 있으며,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광일)이 주관하고 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진군지부에서는 '흰지팡이의 날' 및 '사랑의 끈 연결고리 행사', '인성교육' 등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장애인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인)은 8월 29일(목) 수자원공사 영선본부 직원분들과 함께 복지관 이용자 두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두 가정 모두 지적장애인가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가 절실한 상황 이어서 쓰레기수거, 잡초제거, 빨래,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종인 관장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이며 오늘 수고해주신 수자원공사 영선본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추석 맞이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안기석)은 지난 3일 임직원과 함께 지적장애시설인 예수의 소화 수녀회, 소화성가정(원장 문성월 수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앞서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8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을 기증하여 설치하였고,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20여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과일 등 물품을 전달하였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안기석 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된다.”며 “그동안 임직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지적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봉우 기자

영암군 삼호읍사회보장협의체 꿈을짓는집수리원정대 '콜라보'

장애인 주거위기가정에 지붕 방수 및 방충망 수리



영암군 삼호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꿈을짓는집수리원정대(가칭)는 지난 8월 31일 장애인 주거위기가정에 복지기동대 생활불편사업 지붕 방수 및 방충망 수리 작업을 실시했다.

원정대 및 우리교회 청년들 10여명의 열혈 봉사자들은 그동안

컨테이너 상단에 균열이 생겨 전장으로 물이 새는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 주민을 위해 늦잡과 주말

여행을 포기하고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서 자신들의 시간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저 없이 내어 주었다.

대상자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에서 밑반찬 배달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어 감사드리고 있다. 형광등 옆에서 물이 떨어져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복지기동대 및 협의체를 이끌며 지역사회봉사에 항상 앞장서고 있는 이기만 위원장은 “꾸준히 고난이도의 집수리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라 이번 작업도 처음하는 일임에도 너무나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수요는 많고, 인력도 자금도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상의 효과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겸양의 인사를 건넸다.

삼호읍 맞춤형 복지팀은 “지속적으로 봉사단체와 복지기동대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부서지고 헤어진 마음들을 꿰매고, 단단히 붙들어 매면서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활동 사랑 전해

(사)광주서구자원봉사센터(임형순 소장) 울타리재능봉사단(문순자 회장)이 지난 8월 30, 31일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전했다.

이번 봉사는 양동시장에서 노점상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장애인 노부부가 창문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진행됐다.

이날 울타리재능봉사단 15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모아 두었던 회비 200만원을 후원했다.

또, 도배, 장판, 전기 콘센트, 형광등, 싱크대 등을 교체해 주고 천장 페인트 작업 등 본인의 재능을 발휘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